

수
능
영
어
독
讀
전
戰

ZERO

 저

나에게 讀解란 戰爭이다.

Reading Comprehension, to me, is a war.

Theme 0. 들어가는 글

1. 수능 영어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에서 수능 영어를 공부하는 고등학생·N수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을 것이다. “이판 걸 푸는 게 나중에 무슨 쓸모가 있을까?” 솔직히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지금 당장 유튜브에 들어가 수능 영어를 검색해보면 원어민들에게 수능 문제를 풀어 보게 하는 영상이 수십 개는 나온다. 그 영상들의 결론은 대부분 비슷하다. ‘고등학생들이 풀기엔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한 번도 보지 못한 단어도 있다. 이걸로 영어의 어떤 부분을 평가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나는 영어 선생님인데도 어렵다.’

하지만 1994학년도 첫 수능이 치러진 이래, 대한의 수험생들은 이런 시험을 보고, 고득점을 받고, 대학에 잘만 갔다. 왜 그럴까? 그건 수능 영어는 시험 과목이기 때문이다. 수능 영어영역은 처음 보면 원어민에게도 어려워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시험이기 때문에 성적을 올릴 방법이 존재하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 온 것이다.

수능을 출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의 설명에 따르면 수능 영어영역 시험은 고등학교 영어과 교육과정 성취기준의 달성 정도와 대학에서 수학하는데 필요한 영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며, 간접 쓰기를 포함한 독해 능력 측정을 기본으로 한다.

주저리주저리 있어 보이게 써 놓았지만, 간단히 표현하면 그냥 ‘잘 읽고 잘 풀어라’라는 뜻이다. 정리하자면 수능 영어영역 시험은 영어의 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 영역 중 듣기와 특히 읽기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며, 고등학교 영어 교육과정을 잘 이수했는지, 그리고 대학에서 영어로 된 교재를 읽고 수업을 따라갈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2. 그건 알겠고, 그래서 나보고 어찌라고?

워워, 진정하시라. 이제부터 그 잘 읽고 잘 푸는 법을 알려드리겠다고.

Theme 1. 기초공사

1. 낯선 단어 학습

그 어떤 언어로 쓰인 글을 읽더라도 독해에서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단어다. 단어가 의미 관계로 연결된 것이 문장이고, 문장이 의미 관계로 연결된 것이 바로 글이다. 그러니 단어를 모르면 글이 안 읽히는 게 당연하겠지? 단어를 공부하셔야 한다. 시중에 나온 좋은 단어장 하나를 골라 외우는 것도 좋지만 완전한 방법은 아니다. 맥락 없이 외운 단어와 뜻은 휘발성이 강해 금방 잊기 마련이고, 문장에서 마주쳤을 때 생각난 뜻이 의도된 뜻과 달라 해석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좋은 방법이 바로 글을 읽다가 모르는 단어를 스스로 정리해 외우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예문을 찾을 필요 없이 어떻게 쓰이는지 맥락을 알 수 있고 막연히 단어장에 정리된 순서로 외우는 것보다 동기 부여도 강하다. 중심으로 둘 단어장을 하나 선정해서 외우고, 상기한 방식으로 보충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2. 자주 사용되는 구문 학습하기

구문은 문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패턴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많이 보일 not A but (also) B, B as well as A, so ~ that 등과 같은 표현이 구문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표현은 배경지식 없이 마주쳤을 때 단어 때와 마찬가지로 해석이 안드로메다로 갈 여지가 다분하므로 기초적인 지식이 없다면 구문 교재로 학습을 하고, 어느 정도 기초가 있다면 문제를 풀면서 해설을 보고 몰랐던 구문을 정리해두는 습관을 들이도록 하자.

3. 다양한 주제에 익숙해지기

평가원의 학습 가이드를 읽어보아도 수능 영어영역에서 고득점을 받는 데에 제시해주는 방법은 별 대단한 것이 아니다. 교과서의 지문을 많이 읽어 다양한 주제의 글에 익숙해지고, 출제 유형별 문제에 대응하라는 것이 평가원이 던져준 가이드의 전부다. 우리의 첫 번째 목표는 잘 읽는 것. 잘 읽는 것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수능 영어영역에 출제되는 지문의 주제는 어느 하나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 근본적으로 이 시험은 대학에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있는가를 묻는 시험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부터 경제학, 과학, 역사, 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의 지문이 다루어진다. 따라서 우리는 교과서든 기출 문제든 많은 지문을 통독하며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에 익숙해져야 한다.

Theme 2. 독해통론

글: 문장과 문장 붙여 읽기

글은 단순히 임의의 문장을 나열한 집합체가 아니다. 단어들이 문장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갖고 있듯이, 글 속의 문장 또한 자기만의 역할을 지니고 있다. 글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다든지, 근거를 나타내고 있다든지,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것을 암시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각 문장이 나름의 쓰임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저 문장의 나열만 쫓 읽어내려가서는 읽고 나서 남는 것이 없다. 수능 영어영역의 오답 선지는 본문에 나와 있던 단어를 활용해 만드는 경우가 많고, 그저 흘려보내며 읽었다면 이러한 오답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다. ‘지금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단어 몇 개데 저기 다 들어가 있으니까 저게 맞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다간 내가 장담하는데 삶의 중요한 순간에 길 가다가 레고를 밟게 될 것이다. 안 밟아본 사람을 위해 말해 두자면 정말 뺏속까지 시리고 저린 아픔이다.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은 그걸 겪지 않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붙여 읽는다는 게 정확히 어떤 말인가?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첫째로, 질문하는 자세를 가져라. 첫 문장을 읽을 때는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올까 질문하며 이어질 내용을 예측해보고, 다른 문장들에서는 이 문장이 앞의 내용을 보충해주는지, 반박하는지 등 어떻게 의미가 연결되어 있는지 질문해가며 읽어라. ‘뭐야 별거 없네.’라고 느낄지 몰라도 원래 세상엔 알고 보면 별거 없는 게 많더라. 많이들 실천을 못 할 뿐이지. 지문을 대할 때 이러한 태도를 갖추는 것은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일이다. 제대로 질문해가며 읽으려고 하면 처음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금 당장 빠르게 읽는 게 아니라 수능 날 가서 잘 읽고 잘 푸는 것. 일단 바르게 읽는 방법을 배웠다면(學), 연습을 통해 내 몸에 익혀(習) 결국 써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로, key word들에 주의를 기울여라. 여기서 말하는 key word란 정관사 the와 this, that, these, those, he, she, them 등의 지시어와 대명사,

however, but, nevertheless, while, in fact, rather 등 역접의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지칭한다. 정관사와 대명사, 그리고 지시어를 집중해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모두 같은 맥락에서다. 이러한 단어들의 사용은 지칭하는 대상이 이미 글의 앞부분에 언급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집중해서 읽다 보면 이게 앞에 뭘 지칭하는 거였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연스레 문장과 문장 간의 의미 관계를 파악하게 된다. 그 의미 관계는 순접일 수도 역접일 수도 있는데, 순접의 경우 무엇을 지칭하는지만 파악하면 그 이후의 독해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역접의 경우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however, but 등의 연결사를 놓치거나 뒤의 문장을 날려 읽게 되면 글의 구조 자체를 아예 잘못 파악하게 되어 해석이 안드로메다로 가서 으잉?? 하게 되므로 이러한 단어들을 지문에서 마주쳤다면 속으로 다른 단어보다 크게 읽고 앞과 뒤의 글의 흐름이 어떻게 변하는지 생각하며 읽어라. 장난하냐고? 진심이다. 이렇게 의식하고 읽는 것만으로도 독해의 질을 올리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다.

선지: 말했잖아 임의의 나열이 아니라고

글이 그저 임의적인 문장의 나열이 아니듯 선지 또한 그러하다. 제발 단어로 띄엄띄엄 읽지 말아줘. 어? 이 단어랑 이 단어 방금 지문에 있었던 것 같아. 익숙하니까 대충 맞는 얘기겠지? 이렇게 고르면 또한 삶의 중요한 순간에 길가다가 레고를 밟게 될 것이다. 성적표 받고 원서 넣을 곳 고를 때도 이렇게 고를 건가? 선지를 선택할 때 갖추어야 할 또 다른 기본 태도는 어디서 많이 봤던 단어를 근거로 고르지 않는 것이다. 항상 모든 답의 근거는 최소한 구체적인 한두 문장, 그게 아니라면 글 전체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